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극복 ‘방송과기술’이 함께 하겠습니다



글.
김성관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위기의 긴 터널 속에 암흑과 같은 시기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겨내며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방송기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직면하고 있지만, 방송기술인들은 지혜롭게 전통적인 방송 제작에 매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위기와 고통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방송기술인이 가야 할 길을 깨끗하고 묵묵하게 한발 한발 내디뎌서 나아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을 맡게 된 김성관입니다. 오랜 기간 방송기술인의 소통의 중심에 있는 ‘방송과기술’의 편집

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방송기술인들과 함께하는 ‘방송과기술’이 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부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방송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300회 이상 ‘방송과기술’이 걸어온 방송기술의 근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방송기술인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인 방송 제작과 방송기술 전반의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노력은 여전히 방송기술을 떠받고 있는 원동력이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토대 위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반영하고 접목해 새로운 방송기술의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계의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고 과제와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UHD 방송의 확대와 제작 기반 시설의 확충, ATSC 3.0 활성화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안을 소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방송과기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기술’이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걸음에 발맞춰 방송기술의 소재 이외에도 소양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제작의 일선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일상의 소소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술인이 서로 소통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KOBA, NAB 등의 전시회나 세미나가 2년간 취소 또는 연기되어 신기술과 새로운 방송 장비를 직접 접해볼 기회가 부족해졌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줄어들어

들어 방송기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던 것을 더욱 다져내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AR, XR 등 새로운 미래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래 신기술이 방송기술과의 접목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 현장과 융합할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임인년(壬寅年)은 또한, 음양오행에 따르면 물(水)과 나무(木) 기운의 해라고 합니다. 이 기나긴 겨울의 모진 바람을 헤치고 봄에 눈이 녹아 그 물을 먹고 어린 새싹이 자라나듯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새해 희망을 설계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과기술’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